

# 素問·刺要論에 對한 研究

姜支錫\* · 朴 旻\*\* · 琴垞樹\*\*\*

## I. 緒 論

《素問·刺要論》은 王冰에 의해 註釋이 加해지면서 卷十四 第五十에 編述되었으나, 《新校正》에 “《全元起本》에는 第六卷〈刺齊篇〉中에 있었다.”<sup>2)</sup>”고 하며, 《類經》에는 〈針刺類〉에 들어 있다.<sup>3)</sup>

本篇은 鍼刺治療時에 반드시 患者 疾病의 淺深을 明確히 認識해서 疾病이 있는 部位에 鍼刺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極甚한 危害가 發生하므로 刺鍼의 要法을 黃帝와 岐伯의 問答形式으로 論하였으므로 篇名을 〈刺要論〉이라 命名하였다.

本篇의 要旨는 刺鍼할 때 病所의 淺深에 따라 刺鍼의 淺深을 알맞게 하여야 疾病을 治療할 수 있으며, 淺刺와 深刺를 잘못하면 五臟과 連繫된 四時의 病을 招來할 수 있음을 岐伯이 特히 하나씩의 疾病을 例로 들어서 說明한 것이다. 但 淺刺와 深刺法은 鍼刺要法중의 하나이지 全部는 아니다.

그러나 〈刺要論〉이 古文으로 뜻이 深奧하고 글이 簡略하여 本來의 趣旨를 理解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內容을 좀더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各家註로 比較하여 正確한 뜻을 定立하고자 하였다.

## II. 研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具體적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原文에 縣吐·校勘·字句解·較註를 달고 直譯과 意譯을 하였으며 考察을 하였다.

가. 原文은 《珍做宋版印本》<sup>4)</sup>에 準하였다.

나. 懸吐는 傳來의 懸吐方式를 原則으로 하였다.

다. 校勘은 林<sup>5)</sup>의 《新校正》, 郭<sup>6)</sup>의 《黃帝內經素問校注註語譯》, 河北醫學院<sup>7)</sup>의 《黃帝內經素問校釋》을 參考하였다.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取擇하였다.

마. 較註는 아래 9種 文獻의 註釋들 가운데서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모든 註 가운데서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그 原文들은 脚註를 달아서 參考하도록 하였다.

### <研究資料>

1. 王冰(唐) : 《黃帝內經素問》(以下 ‘王’으로 約한다)
2. 馬蒔(明) : 《黃帝內經注證發微》(以下 ‘馬’로 約한다)
3. 吳崑(明) : 《黃帝內經素問吳注》(以下 ‘吳’로 約한다)
4. 張介賓(明) : 《類經》(以下 ‘景岳’으로 約한다)
5. 張志聰(清) : 《素問集註》(以下 ‘張’으로 約한다)
6. 高士宗(清) : 《素問直解》(以下 ‘高’로

\* 圓光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課程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教授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助教授

約한다)

7. 姚止庵(淸) : <素問經注節解>(以下 ‘姚’ 로 約한다.)

8. 山東省中醫學院(1958) : <黃帝內經素問白話解>(以下 ‘白話解’ 로 約한다)

9. 王琦 等(1980) : <黃帝內經素問今釋>(以下 ‘今釋’ 으로 約한다)

바. 直譯은 原文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사. 意譯은 含蓄된 뜻까지 理解되도록 附言하여 解釋하였다.

아.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校勘에 ○, 字句解에 ( ), 較註에 [ ], 引用文獻에 < > 로 表示하였으며, 脚註는 1), 2), 3)……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 Ⅲ. 本 論

#### 【原文】

黃帝問曰 願聞刺要<sup>[1]</sup> 하노이다

岐伯이 對曰 病有浮沈<sup>[2]</sup> 하고 刺有淺深<sup>[3]</sup> 하니 各至其理<sup>[1][4]</sup> 하여 無過其道<sup>[5]</sup> 라 過之則內傷<sup>[6]</sup> 하고 不及則生外壅<sup>[2][7]</sup> 하니 壅則邪從之<sup>[8]</sup> 하여 淺深不得<sup>[9]</sup> 하면 反爲大賊<sup>[3][10]</sup> 하여 內動<sup>[11]</sup> 하고 後生大病이라

#### 【校勘】

① ‘生’ 자는 아래의 ‘後生’句의 영향을 받은 衍文이다. 王注에 ‘不及外壅’이라 한 것을 보면 王의 所據本에도 원래 ‘生’字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② <甲乙經>에는 ‘動’이 ‘傷’으로 되어 있다.

#### 【字句解】

(1) 理(리); 木理, 나무결 리. 여기서는 組織의 뜻.

(2) 壅(웅); 塞也, 막을 웅, 막힐 웅.

(3) 賊(적); 傷害, 해칠 적, 패할 적.

#### 【較註】

[1] 刺要 ; 馬·高·今釋에는 “鍼刺의 要法이다. 8)”고 하였다.

[2] 病有浮沈 ; 高·白話解·今釋은 “病變 部位의 淺深이다. 9)”고 하였고, 吳는 “病의 輕重이다. 10)”고 하였다.

[3] 刺有淺深 ; 馬·高·白話解는 “病變部位의 淺深이 있으므로 刺鍼에도 淺深이 있다. 11)”고 하였다.

[4] 各至其理 ; 吳·張·高는 “理는 皮膚肌肉의 紋理이다. 12)”고 하였고, 姚는 “脈에 文理와 道路가 있다. 13)”고 하였으며, 白話解·今釋은 “刺針할 때에는 各各 皮膚肌肉이 相應하는 部位에 刺鍼해야 한다. 14)”고 하였다.

[5] 無過其道 ; ‘道’를 王·吳는 “道는 血氣가 流行하는 길이다. 15)”고 하였고, ‘無過其道’를 景岳·張·高·白話解는 “病이 淺部에 있을 때 淺刺하지 않고 深部에 있을 때 深刺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 程度를 지나친 것이다. 16)”고 하였다.

[6] 過之則內傷 ; 王·姚는 “매우 深刺하게 되면 眞氣가 泄出되기 때문이다. 17)”고 하였고, 馬·景岳·高는 “지나치게 深刺하면 內部에서 氣를 傷하게 된다. 18)”고 하였으며, 吳는 “病들지 않은 部分이 虛弱해지는 것이다. 19)”고 하였고, 張·白話解·今釋은 “지나치게 深刺하면 안으로 五臟을 傷하게 된다. 20)”고 하였다.

[7] 不及則生外壅 ; 王·吳는 “表部에 있는 邪氣를 助長하는 것이다. 21)”고 하였고, 馬·景岳·張·高·白話解·今釋은 “疾病이 있는 部位에 미치지 못하여 淺刺하게 되면 外部에 邪氣가 壅滯하게 된다. 22)”고 하였으며, 姚는 “不及하여 淺刺하면 邪氣가 除去되지 않는다. 23)”고 하였다.

[8] 壅則邪從之 ; 王·白話解는 “邪氣가 虛한 것을 따라 侵入한다. 24)”고 하였고, 景岳·張·高는 “壅이 發生하면 血氣가 運行되지 못하여 邪氣가 刺針을 따라 侵入한다. 25)”고 하였다.

[9] 淺深不得 ; 吳·張·白話解·今釋은 “針刺에 淺刺와 深刺를 알맞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6)”고 하였다.

[10] 反爲大賊 ; 馬·吳·景岳·張·高·白話解·今釋은 “오히려 큰 危害가 된다. 27)”고 하였고, 姚는 “病이 轉變하여 危重하게 된다. 28)”고 하였다.

[11] 內動五臟 ; 王·今釋은 “五臟의 氣를 搖動한다. 29)”고 하였고, 景岳·白話解는 “너무 深刺하여 안으로 五臟을 傷한다. 30)”고 하였다.

#### 【直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刺鍼의 要法을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對答하기를 病에는 淺深이 있고, 刺鍼에도 淺深이 있으니, 각기 그 紋理에 到達하여 그 道를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太過하면 안으로 五臟의 氣가 傷하고 不及하면 外壅을 생기게 하는데, 壅하면 邪氣가 刺針을 따라 侵入합니다. 淺刺와 深刺를 잘못하면 도리어 큰 危害가 되어 안으로 五臟을 動搖시켜서 後에 大病이 생깁니다.

#### 【原文】

故曰 病에 有在毫毛<sup>(4)</sup>[12] 腠理<sup>(5)</sup>者하고 有在皮膚者하고 有在肌肉<sup>(6)</sup>者하고 有在脈者하고 有在筋者하고 有在骨者하고 有在髓者라

#### 【字句解】

(4) 毫毛(호모); 皮膚 위의 미세한 털.

(5) 腠理(주리); 皮膚의 汗孔. <金匱要略·藏府經絡先後病脈證篇>에 “腠란 三焦가

元眞을 通會하는 곳이요. 理란 皮膚와 藏府의 紋理라.”고 하여 皮膚의 汗腺·皮脂腺 등의 紋理라는 뜻 以外에도 五臟六腑의 紋理까지 포함된다.

(6) 肌肉(기육); 全身 運動을 담당하는 組織. 肌肉의 營養은 脾가 水穀精微를 運化한데서 얻어지므로 脾가 主하는 것이 된다.

#### 【較註】

[12] 毫毛腠理 ; 王은 “毛中에서 긴 것을 毫毛, 皮膚의 紋理를 腠理라고 하나, 毫毛와 腠理는 모두 皮膚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31)”라고 하였고, 吳·今釋은 “人體에서 가장 表淺部位이다. 32)”고 하였으나, 高는 “毫毛腠理는 毫毛中에 腠理가 있다. 33)”고 하였다.

#### 【直譯】

그러므로 病에는 毫毛·腠理에 있는 것, 皮膚에 있는 것, 肌肉에 있는 것, 脈에 있는 것, 筋에 있는 것, 骨에 있는 것, 髓에 있는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 【原文】

是故曰 刺毫毛腠理에 無傷皮<sup>13)</sup> 皮傷則內動肺<sup>13)</sup> 하고 肺動則秋病溫瘧<sup>(7)</sup>[14] 하여 泝泝<sup>(8)</sup>[15] 然寒慄하고

#### 【校勘】

③ <甲乙經>에는 ‘溫瘧’ 밑에 ‘熱厥’二字가 더 있다.

④ 泝泝; <甲乙經>에는 ‘泝泝’으로 되어 있는데, ‘泝’이 옳다고 본다. ‘泝’은 ‘泝’의 形誤이다. <廣雅>에 “泝은 洒也라”고 하였으니, 洒然은 추위에 떠는 모양이다.

#### 【字句解】

(7)溫瘧(온학); 瘧疾의 하나. 邪氣가 陰經에 潛伏해 있다가 가을에 먼저 風에 傷한 다음 다시 寒에 傷하거나 暑熱邪를 받아서 생긴다. 또한 三陰經에 熱이 있는데다 가을에 瘧疾의 邪氣를 받아서 생길 수도 있다. 먼저 높은 熱이 난 다음에 惡寒이 나는데 惡寒은 심하지 않고 머리가 몹시 아프며 뼈마디가 쭈시고 渴症이 나며 煩躁不安하고 때로 惡心 한다.

(8)泝泝(소소); 泝泝는 淅淅의 誤字. 泝(소); 順流下, 흘러갈소.

淅淅(석석); 빗소리. 바람 부는 모양. 여기서는 추워서 戰慄하는 것을 말한다. 泝(석); 雨聲, 빗소리석.

【較註】

[13]皮傷則內動肺<動肺> ; 馬·景岳·高·白話解·今釋은 “皮는 肺의 配合이 되니 皮가 傷하게 되면 안으로 肺가 動搖한다.<sup>34)</sup>”고 하였다.

[14]肺動則秋病溫瘧 ; 王·馬·吳·景岳·張·高·姚·白話解·今釋은 “肺는 皮에 配合하고 秋氣에 旺盛하므로 肺氣가 動搖하면 가을에 溫瘧의 疾病이 된다.<sup>35)</sup>”고 하였다.

[15]泝泝然 ; 張·白話解·今釋은 “寒冷하여 戰慄하는 現象이다.<sup>36)</sup>”라고 하였다.

【直譯】

그러므로 毫毛와 腠理를 刺鍼할 때에 皮를 傷하지 않아야 하니, 皮가 傷하면 안으로 肺가 動搖하고, 肺가 動搖하면 가을에 溫瘧이 發病하여 추워서 戰慄하게 되며

【原文】

刺皮에 無傷肉이니 肉傷則內動脾하고 脾動則七十二日 四季之月<sup>[16]</sup>에 病腹脹<sup>(9)</sup> 煩<sup>(5)</sup> 不嗜食<sup>(10)[17]</sup> 하고

【校勘】

⑤<甲乙經>에 ‘煩’ 밑에 ‘滿’字가 더 있다.

【字句解】

(9)腹脹(복창); 배가 몹시 불러 오르면서 속이 그득한 감을 主症狀으로 하는 病症. 七情損傷이나 飲食內傷, 六淫 등으로 肝·脾가 虛損되어 氣血이 凝滯되고 水濕이 運化되지 못하여 생긴다.

(10)不嗜食(불기식); 飲食 생각이 없는 症. 脾胃가 弱하거나 大病을 앓고 난 뒤에 脾胃氣가 回復되지 않았을 때, 痰이 中焦에 있을 때 생긴다.

【較註】

[16]七十二日 四季之月 ; 王·馬·吳·景岳·高·姚·白話解·今釋은 “脾는 四季之月(3·6·9·12月)의 끝 各各 18日에 旺盛하니 모두 72日을 主宰한다.<sup>37)</sup>”고 하였다.

[17]病腹脹煩不嗜食 ; 吳·高·白話解는 “脾는 中宮을 主宰하므로 腹脹하며 脾氣가 運行되지 못하면 中氣가 不化하므로 煩滿하게 된다. 脾가 病들면 飲食物을 消化시키지 못하므로 먹기를 싫어한다.<sup>38)</sup>”고 하였다.

【直譯】

皮를 刺鍼할 때에는 肉을 傷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 肉이 傷하면 안으로 脾가 動搖하고, 脾가 動搖하면 四季의 月(3, 6, 9, 12월)의 끝 各各 18일을 합한 七十二日에 腹脹·煩滿·不嗜食하는 病에 걸리며

【原文】

刺肉에 無傷脈하니 脈傷則內動心하고 心動則夏病心痛하고

【直譯】

肉을 刺鍼할 때에는 脈을 傷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 脈이 傷하면 안으로 心이 動搖하고, 心이 動搖하면 여름에 心이 病들어 아프고

【原文】

刺脈에 無傷筋하니 筋傷則內動肝하고 肝動則 春病熱而筋弛<sup>(11)[18]</sup>하고

【字句解】

(11)弛(이); 解也, 해이할 이, 풀어질 이.

【校註】

[18]肝動則春病熱而筋弛 ; 王·馬·吳·景岳·張·白話解·今釋은 “筋이 傷하면 안으로 肝이 動搖하게 되고, 肝이 動搖하면 肝은 春을 主宰하니 봄에 이르러 發熱과 筋이 弛緩하는 病이 發生한다. 弛는 緩이다. 바로 熱을 加하게 되면 筋이 弛緩한다. 39)”고 하였다.

【直譯】

脈을 刺鍼할 때는 筋을 傷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니 筋이 傷하면 안으로 肝이 動搖하고 肝이 動搖하면 봄에 發熱하면서 筋이 弛緩하는 病이 發生하고

【原文】

刺筋에 無傷骨하니 骨傷則內動腎하고 腎動則 冬病脹 腰痛<sup>[19]</sup>하고

【校註】

[19]腎動則冬病脹 腰痛 ; 王·馬는 “腎은 또 한 骨을 配合하고 冬氣에 旺盛한다. 腰는 腎의 府가 되므로 骨이 傷하게 되면 腎이 動搖하게 되고 腎이 動搖하면 겨울에 腰痛이 發生한다. 腎脈의 運行은 腎으로 부터 위로 肝과 橫膈膜을 貫通하고 또 腰部는 腎의 府이므로 腎이 動搖하면 腎이 主宰하는 겨울에 脹病과 腰痛이 發生한다.40)”고 하였고, 吳는 “腎은 骨과 相合하고 겨울에 旺盛하니 骨이 傷하여 腎이 動搖하게 되면 겨울에 가서 閉藏할

수 없으므로 脹病과 腰痛이 發生한다. 41)”고 하였으며, 姚는 “人體의 氣는 本來 命門에 根源하므로 腎을 傷하면 命門이 氣化作用을 할 수 없어 氣가 運行되지 않으므로 脹病이 發生한다.42)”고 하였다.

【直譯】

筋을 刺鍼할때에는 骨을 傷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니 骨이 傷하면 안으로 腎이 動搖하고 腎이 動搖하면 겨울에 脹病과 腰痛이 발생한다.

【原文】

刺骨에 無傷髓니 髓傷則銷鑠<sup>⑥(12)[20]</sup>肱<sup>(13)</sup>酸<sup>(14)[21]</sup>하며 體解<sup>(15)[22]</sup>然不去<sup>(23)</sup>矣라

【校勘】

⑥銷鑠: <甲乙經>에는 ‘消鑠’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2)銷鑠(소삭); 쇠를 녹이는 것. 銷(소); 鑠金, 녹일 소. 鑠(삭); 銷金, 쇠녹일 삭.
- (13)肱(행); 脛也, 종아리 행. 肱과 同.
- (14)酸(산); 悲痛, 새콤새콤할 산, 아플 산.
- (15)休(역); 病名, 解~, 병이름 역.

【校註】

[20]銷鑠 ; 王은 “腦髓銷鑠은 骨이 비었기 때문이다.43)”고 하였다.

[21]肱酸 ; 吳는 “肱은 脛骨로서 小腿部の 內側이니 酸痛은 脛骨이 저린 症狀이니 髓海가 不足하기 때문이다.44)”고 하였다.

[22]解休 ; 王·馬는 “強하나 強하지 않고 弱하나 弱하지 않고 熱하나 熱하지 않고 寒하나 寒하지 않다. 나른해서 무엇이랴 命名할 수 없다.45)”고 하였고, 吳는 “熱

하나 熱하지 않고 寒하나 寒하지 않아서 命名할 수 없다는 뜻이다. 46)”고 하였으며, 張·景岳·白話解는 “全身이 倦怠困弱한 것을 말함이니 陰이 虛한 것이다. 47)”라고 하였다.

[23]不去 ; 馬·吳·景岳·白話解·今釋은 “步行할 수 없다. 48)”고 하였다.

【直譯】

骨을 鍼刺할 때에는 髓를 傷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니, 髓가 傷하면 骨髓가 비어 정경이 시큰거리고 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어서 步行하지 못합니다.

IV. 考 察

‘病有浮沈’에 대해서 吳는 ‘病的 輕重이다’라고 하였으나, 下文에 ‘刺鍼을 疾病部位에 알맞게 하여야 하니 太過하면 內傷이 發生하고 不及하면 外壅이 發生한다.’고 하였으니, 高·白話解·今釋의 ‘病變 部位의 淺深’이라고 한 것이 妥當하다.

‘無過其道’에서 ‘道’를 王은 ‘道는 氣가 行하는 길이다’고 하였고, 吳는 ‘道는 血氣 循行의 길을 말한다.’고 하였으나, ‘深淺의 區分’이라고 하여 景岳·張·高·白話解는 ‘無過其道’를 ‘病이 淺部에 있을때 淺刺하지 않고 深部에 있을때 深刺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 程度를 지나친 것이다.’라고 한 것이 妥當하다.

‘過之則內傷’은 王·姚는 ‘너무 深刺해서 眞氣가 泄出되었기 때문에 內傷이 發生한다.’고 하였고, 馬·景岳·高는 ‘너무 深刺하면 內部の 氣를 손상시킨다.’고 하였으며, 吳는 ‘病들지 않은 部分이 虛弱해지는 것이다.’고 하였으나, 下文에 지나치게 深刺했을 경우 그 部位와 表裏關係에 있는 五臟과 相

合關係에 있는 季節에 發病한다고 하였으므로 張·白話解·今釋이 ‘지나치게 深刺하면 안으로 五臟을 傷하게 된다.’고 한 것이 妥當하다.

【意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刺鍼의 要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對答하기를, “病變部位에 淺層과 深層이 있으니 刺鍼할 때에도 淺刺와 深刺의 區別이 있어서, 刺鍼은 그 皮膚肌肉 등의 病所에만 到達하여야 하며, 그 程度를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病所보다 深刺하면 안으로 五臟의 氣가 傷하고, 病所보다 淺刺하면 도리어 外部에 邪氣가 壅滯되면 內部는 반드시 虛하게 되어 邪氣가 그 虛한 것을 따라 侵入하게 되니 이러한 것들이 모두 刺鍼의 淺深을 알맞게 하지 못하여 發生한 現象입니다. 淺刺와 深刺를 適合하게 하지 못하면 도리어 큰 危害가 되어 안으로 五臟을 傷하여 後에 大病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邪氣가 人體에 侵入한 部位가 淺深이 있으므로 發病의 部位도 毫毛와 腠理에 있는 것, 皮膚에 있는 것, 肌肉에 있는 것, 脈에 있는 것, 筋에 있는 것, 骨에 있는 것, 髓에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毫毛와 腠理를 刺鍼할 때에는 皮膚를 傷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니 皮膚는 肺와 相應하므로 皮膚가 損傷을 받으면 반드시 안으로 肺氣를 動搖시키고, 肺氣가 動搖하게 되면 皮毛가 虛하게 됩니다. 邪氣가 腠理에 侵入하면 肺가 主宰하는 가을에 이르러서 溫瘧이 發生하니 그 症狀은 추워서 戰慄하게 됩니다. 皮膚를 刺鍼할 때에는 肌肉을 損傷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니 肌肉은 脾와 相合하므로 肌肉이 損傷되면 반드시 안으로 脾氣를 動搖시켜 脾氣가 運化作用을 할 수 없게 하므로 脾氣가 旺盛한 四季月(3, 6, 9, 12)의 끝 각각 18日을 합한 72

日中에 腹部脹滿과 煩躁, 食慾減退 등의 病變이 發生합니다. 肉을 刺鍼할 때에는 脈을 損傷시키지 않아야 하니 脈은 心臟과 相合하므로 脈이 損傷을 받으면 반드시 안으로 心氣를 動搖시켜 心이 主宰하는 時期인 여름철에 心痛이 發生하게 됩니다. 筋을 刺鍼할 때에는 骨을 損傷시키지 않아야 하니 骨은 밖으로 腎과 相合하므로 骨이 損傷되면 안으로 腎氣가 動搖하게 되고, 腎이 主宰하는 時期인 겨울에 이르러 腹部脹滿과 腰痛의 病變이 發生하게 됩니다. 骨을 刺鍼할 때에는 髓를 損傷시키지 않아야 하니 髓가 損傷되면 骨이 비게 되므로 斷骨이 시큰거리고 아프며, 全身이 倦怠롭고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病變이 發生하게 됩니다.”

준다고 하였고, 肝은 筋에 配合되어 筋이 傷하면 肝에 影響을 준다고 하였고, 腎은 骨에 配合되어 骨이 傷하면 腎에 影響을 준다고 하여 毫毛·腠理·皮膚·肌肉·脈·筋·骨·髓와 相合하는 臟腑를 損傷시킨다고 하였고, 肺는 가을에 配合되어 肺가 傷하면 가을에 쉽게 病變이 發生하고, 脾는 每季에 配合되어 脾가 傷하면 四季에 쉽게 病變이 發生하고, 心은 여름에 配合되니 心은 쉽게 여름에 病變이 發生하고, 肝은 봄에 配合되어 肝이 傷하면 가을에 쉽게 病變이 發生하고, 腎은 겨울에 配合되므로 腎은 쉽게 겨울에 病變이 發生한다고 하여 五臟에 相合하는 季節에 그 病變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 V. 結 語

〈黃帝內經〉中 〈刺要論〉의 주된 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本篇은 針刺의 方法中 ‘疾病部位의 淺深’에 따른 ‘刺鍼의 淺深’과 대해서 말하였다. ‘各至其理 無過其道’라 하여 刺針前에 반드시 疾病의 部位의 淺深과 表裏關係의 證候를 살펴서 刺針의 淺深을 반드시 適切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患者에게 큰 危害를 造成해서 醫源性病變을 일으키게 된다. ‘淺深을 合當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大賊이되어 안으로는 五臟을 傷하고 後에는 大病을 생기게 한다.’고 하여 臨床에서 매우 注意할 것을 提示한 것이다. 그러나 深刺했을 때 表裏와 季節에 相合하여 疾病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가령 肺는 皮毛에 配合되어 皮가 傷하면 肺에 影響을 주고, 脾는 肌肉에 配合하여 肉이 傷하면 脾에 影響을 준다고 하였으며, 心은 脈에 配合되어 脈이 傷하면 心에 影響을

## 參考文獻

1. 王冰撰;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旋風出版社, 台北, 1979
2. 林 億; 補注黃帝內經素問, 中華書局, 台北, 1966
3. 張介賓; 原本類經, 大成文化社, 서울, 1982
4. 王 冰; 黃帝內經素問, 珍微宋版印, 中華書局
5. 林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6. 朴 炆; 國譯類經, 大成文化社, 서울, 1984
7.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8. 馬蔣·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篇,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77
9. 吳 崑; 黃帝內經素問吳註, 山東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83
10. 高世忭; 黃帝內經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85
11.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大一書局, 台北, 1977
12. 王 琦外 四人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13. 洪元植; 黃帝內經素問解釋, 高文社, 1977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15. 洪元植; 黃帝內經素問直譯, 傳統文化研究院, 서울, 1991
16. 北京中醫學院; 內經釋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2
17. 程士德; 內經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
18. 琴垞樹; 黃帝內經中 素問·上古天真論과 四氣調神大論에 對한 研究, 이리, 圓光大學校 大學院, 1985
19. 琴垞樹; 素問·陰陽應象大論에 對한 研究, 이리, 圓光大學校 大學院, 1990
- 1990
15. 梁柱東; 현대국어사전, 一中堂, 서울, 1980
16. 김동일박사의 4인; 東醫學辭典, 驪江出版社, 서울, 1989

#### <參考辭典類>

1. 張三植 編著; 大漢韓辭典, 集文堂, 서울, 1975
2. 金赫濟·金星元 編著;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3.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4.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5.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6. 謝 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70
7. 金賢濟·洪元植 共譯; 韓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1983
8. 金元中 編著; 虛辭辭典, 玄岩社, 서울, 1989
9. 中醫研究院, 廣東中醫學院編, 黃鍾律外一人 譯; 韓醫學名詞述語辭典, 논장, 서울, 1987
10.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
11. 上海中醫學院文獻研究所編; 中國醫籍字典, 江書技術出版社, 江西, 1987
1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13. 張登本·武長春 主編; 內經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4. 李熙昇 編著; 國語大辭典, 民衆書館, 서울,



- 1) 王 冰; 黃帝內經素問, 珍傲宋板印, 中華書局.
- 2) 林 億; 補注黃帝內經素問, 中華書局, 台北, 1966.
- 3) 張介賓; 原本類經, 大成文化社, 서울, 1982.
- 4) 王 冰; 黃帝內經素問, 珍傲宋板印, 中華書局.
- 5) 註2)과 同.
- 6)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 7)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 8) 馬; “刺鍼之要法이라”, 高; “刺法之要라”, 今釋; “針刺的要領이라”
- 9) 高; “病有淺深이라”, 白話解; “病的部位는 是有浮(淺層)하고 有沈(深層)的이라”, 今釋: “病變部位的深淺而言이라”
- 10) 吳; “病有輕重이라”
- 11) 馬; “浮則刺當淺이요 沈則刺當深이라”, 高; “刺有淺深은 猶言病有淺深하야 而刺因有淺深也라”, 白話解; “病的部位는 是有浮(淺層)하며 有沈(深層)의이니 所以로 在針刺的時候에 就有淺刺和深刺의不同이라”
- 12) 吳; “理는 分肉이니 卽皮膚肌肉之紋理라”, 張; “理는 皮膚肌肉之文理니 蓋脈肉筋骨之間에 各有淺深之理路라”, 高; “各至其理는 各至皮肉脈筋骨之文理니 刺所當至하야 毋容淺也라”
- 13) 姚; “脈有文理하고 脈有道路하니 淺深合宜라야 乃爲得也라”
- 14) 白話解; “刺的時候에 各刺至其皮膚肌肉의 應刺部位라”, 今釋; “各至其理 無過其道의 ‘理’와 ‘道’는 應作程度요 分寸으로 理解니 乃言針刺의 深淺一定에 恰如其分이라”
- 15) 王; “道는 謂氣所行之道也라”, 吳; “道는 指血氣循行之道라”
- 16) 景岳; “應淺不淺하고 應深不深은 皆過其道也라”, 張; “隨病之浮沈而取之하야 無使其過與不及也라”, 高; “無過其皮肉脈筋骨之道하야 刺中其道니 毋容過也라”, 白話解; “不要超過應刺의 深度라”
- 17) 王; “過之內傷은 以大深也요”, 姚; “過則大深而眞氣泄이라”
- 18) 馬; “過于深者則內傷이라”, 景岳; “過於深則傷氣於內라”, 高; “所謂無過其道者는 過之則內傷이니 是는 太過而反傷其內也라”
- 19) 吳; “過之內傷은 虛其不病之分也라”
- 20) 張; “刺過其道하면 則內動五臟이라”, 白話解; “如超過其深度하면 就會內傷五臟이라”, 今釋; “那麼針刺過深會內傷臟腑之氣라”
- 21) 王; “以妄益他分之氣也니 氣益而外壅이라”, 吳; “益其在表之氣也라 壅은 指氣壅滯라”
- 22) 馬; “不及而淺者則外壅留邪라”, 景岳; “失於淺則致氣於外하야 爲壅腫이라”, 張; “不及其理하면 則妄傷其外而生壅이라”, 白話解; “若未刺到應刺의 深度하면 反足以誘氣外壅이라”, 今釋; “針刺深度不及하면 使在表의 氣血이 受到擾亂 而壅滯不行이라”
- 23) 姚; “不及則淺而邪不去라”
- 24) 王; “邪氣隨虛而從之也라”, 白話解; “氣壅於外하면 其內必虛하니 邪氣卽隨其虛而侵入이라”
- 25) 景岳; “爲壅腫而邪反從之라”, 張; “壅則血氣不行하야 而邪氣從之矣라”, 高; “壅則邪從之는 是不及而徒傷其外也라”
- 26) 吳; “針刺의 深淺不恰當이라”, 張; “不得其淺深之法이라”, 白話解; “這都刺得深淺不當所致라”, 今釋; “所以針刺에 深淺不能恰到處라”
- 27) 馬·景岳·張·高·白話解; “反爲大害也라”, 吳; “反有很大的危害라”, 今釋; “反而會給人體帶來嚴重的禍害라”
- 28) 姚; “于是病轉至于深重也라”
- 29) 王; “動은 謂動亂이라”, 今釋; “擾動五臟之氣라”
- 30) 景岳; “動은 傷動也라”, 白話解; “若刺의 過深하야 而內傷五臟이라”
- 31) 王; “毛之長者를 曰毫毛요 皮之文理를 曰腠理라 然이나 二者는 皆皮之可見者也라”
- 32) 吳; “毛之長者를 謂之毫요 肌之有文者를 謂之理니 毫皮腠理는 指皮膚의 淺表組織이라”, 今釋; “毫毛腠理는 乃人體最表淺의 部位라”
- 33) 高; “毫毛中之腠理也라”
- 34) 馬; “皮傷하면 則皮爲肺之合이니 當內動于肺라”, 景岳; “皮는 爲肺之合이니 皮傷則內動於肺라”, 高;

生溫瘧이라”

- 36) 張; “氣上逆而寒慄也라”, 白話解: “寒冷戰慄的現象이라”, 今釋; “畏寒凜慄이라”
- 37) 王; “三月六月九月十二月的 各十二日後에 土寄王十八日也라”, 馬; “脾主四季之月の 各王一十八日하니 共七十二日이라”, 吳; “脾土는 寄王四季하니 每季之末에 各得十八日하면 共成七十二日이라”, 高; “脾主四季하니 每季에 各十八日하면 共七十二日이라”, 姚; “三月 六月 九月 十二月的 各十二日後에 土寄王十八日也라”, 白話解; “脾寄旺于四時中的七十二日이라(每時寄旺十八日)”, 今釋; “脾主每季的後十八天하야 一年四季共計七十二日하니 脾傷而變動하면 則于其所主的七十二日出現病變이라”
- 38) 吳; “脾主中宮 故로 腹脹하며 脾氣不運하면 則中氣不化 故로 令煩이라 脾病則不磨 故로 令不嗜食이라 脹 煩은 指腹脹煩滿이라”, 高; “四季之月에 有腹脹之病하고 腹脹則心煩하고 而不嗜食이라”, 白話解; “腹脹滿 煩은 不思飲食的病變이라”
- 39) 王; “肝之合筋이오 王於春氣라 針經에 曰 熱則筋緩이라하니 故로 筋傷則動肝하고 肝動則春病熱而筋弛緩이라”, 馬; “肝動則肝主春하니 至春에 當病熱證 而筋弛라 弛者는 緩也니 正以熱則筋緩也라”, 吳; “肝은 合筋而王于春이라 筋傷肝動하면 則春月에 無以升生 故로 虛陽內熱而筋縱弛라”, 景岳; “筋傷則肝氣動 故로 於春陽發生之時에 當病熱證하고 熱則筋緩 故로 爲弛縱이라”, 張; “筋乃肝之合이오 肝主春令 故로 動肝하면 則肝氣虛而春病熱하고 筋傷하면 則弛縱矣라”, 白話解; “肝氣動하면 到春天은 肝主治的時候니 就要發生發熱과 和筋弛緩的病變이라”, 今釋; “肝臟功能變動하면 則到春季變生熱病하야 而見筋脈弛緩이라”
- 40) 王; “腎亦合骨이오 王於冬氣라 腰는 爲腎府 故로 骨傷則動腎하고 腎動則冬病腰痛이라 腎之脈에 直行者는 從腎하야 上貫肝鬲 故로 脹也라”, 馬; “腎動則腎主冬하니 當病腹脹腰痛也라 正以腎脈直行은 從腎하야 上貫肝鬲 而腰又爲腎之府 故로 其爲病如此라”
- 41) 吳; “腎은 合骨而王于冬이라 骨傷動腎則冬月에 無以奉藏 而病脹與腰痛矣라”
- 42) 姚; “腎傷하면 腰痛이 宜矣라 其病脹者는 人身中之氣가 本原于命門하니 腎傷則命門已不能化氣하야 壅遏不行 故로 脹이라”
- 43) 王; “腦髓銷鑠은 骨空之所致也라”
- 44) 吳; “髓은 指脛骨이니 位于小腿部的內側이라 髓酸은 指脛骨發酸이니 是髓海不足的表現이라”
- 45) 王; “強不強 弱不弱 熱不熱 寒不寒이라 解解休休然하야 不可名之라”, 馬; “強不強 弱不弱 寒不寒 熱不熱는 解休然하야 不可以名耳라”
- 46) 吳; “熱不熱 寒不寒이니 弱不可名之意라”
- 47) 張; “解休은 懶惰也라”, 景岳; “懈怠困弱之名이니 陰之虛也라”, 白話解; “全身懈怠無力이라”
- 48) 馬; “不能行動而去也라”, 吳; “不能行步也라”, 景岳; “陰虛하면 則氣虛하고 氣虛하면 則不能舉動하니 是를 謂不去也라”, 白話解; “不能行動”, 今釋; “去는 往也行也니 此는 作行動解라 不去는 卽不能行動이라”